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독서 : 사도 10, 34a, 37-43

제 2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순정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 3, 1a)

축! 부활



빛,
빛이 들어갔다.
어둠
그 속으로

손,
빛을 잡던 손,
손들이 빛을 던졌다
어둠 속으로 밀어던졌다.

어둠
그 속에서
빛,
빛이 이겼다

어둠
어둠은 깨져
빛에 스며들었다.

빛,
빛이 이겼다.
죽음,
죽음을 이겼다.

시인-서정술(안젤라)

정의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

모 보 일(즈가리아)

우리는 언제나 잘 된 선거를 치를 수 있을런지. 국민들은 한 번만이라도 올바른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고 그 한 번의 선거가 이번 4·11총선이길 바라고 있지만 이번에도 틀린 것 같다.

‘돈은 묶고 말을 무제한 풀었다’는 ‘통합선거법’이 돈을 묶지 못한 채 말은 지나치게 풀려 폐단이다.

선관위의 으름장에도 ‘10략 20당’이니 ‘20략 30당’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공천헌금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돈으로 표를 모으려는 후보와 이에 편승해 후보에게 손을 벌리는 유권자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후보를 등치는 선거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니 이 모두가 실질적으로 돈을 묶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말은 어떠한가.

정당마다 대변인을 7~8명씩을 두고 공식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풀린 말로 정당간 흑색비방, 욕설, 인신공격, 지역감정 부추기기를 일삼다가 선관위의 경고까지 받는 추태를 연출했다.

“장을 갈라먹는 한패거리”

“냥자(狼子 : 이리새끼)무리들”

“군사독재의 사생아와 잔재들”

“대통령병에 걸린 치유불능 환자”

“떨치가 기가막혀”...

이상은 선관위가 총선을 앞둔 각 정당간 저질 ‘말’ 싸움을 보다못해 낸 ‘저질논평 사례집’가운데 일부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는 어떠한가. 저마다 참신성을 내세우고 지역 일꾼임을 자처하는 ‘말’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신뢰감이 가지 않는 것은 웬일일까. 그래서인지 연설회장이 썰렁하다. 합동 연설회와 선거구별 정당연설회는 동원이나 연사의 무게 영향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지만 무제한으로 풀린 개인연설회장은 청중이 모여들지 않는 것이다. 로고송을 틀고 연예인을 동원 공연을 펼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다해도 실통치가 않다.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눈총에 시작했다가도 중단하기 일쑤다.

‘말’이 아무리 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시간과 인력, 경비만 낭

비하는 꼴이다.

역대 어느 선거라도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겠지만 4·11총선은 참으로 중대한 성격을 지닌다. 다음 달 30일부터 2000년 5월29일까지인 15대 의원의 임기가 말하듯 이번 선거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정치주역들을 뽑는 선거다. 이 기간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국으로 진입해 정상적인 선진민주주의 제도 위에 올라서야 할 기간이다. 출마자들이나 유권자들 모두가 이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를 선택, 자신의 귀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역시 인물본위로 깨끗한 인물을 뽑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선거는 자신들이 뽑은 대표들을 믿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뿐이다.

불법과 탈법 지역주의 부추기기 등 비열한 수단으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부정이나 불법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표로 심판함으로써 주인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정의가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숲정이 산책



예수님의 강편치!

시(詩)

혼자
부르는
사랑



방미정(안나)
화산동 천주교회

- 1965년생
- 뇌성마비로서 장애인 모임과 성서교실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왜 멀리 떠나면 집이 그리운 것일까?
응 그건 거기에 부모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나는 왜 멀리 떠나면 보고픈 사람이 눈에 보일까?
응 그건 따뜻한 체온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항상 나를 생각하며 염주알을 굴리시는 할머니의 자상한 손길도 있기 때문이야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뉘 아기와
사랑하는 아기가빠도 내 곁에 있음으로

나는 왜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버리지 아니할까?
응 그건 우정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싶은거야

나는 왜 모교에 자꾸만 가고 싶은 것일까?
응 그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성장케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야

나는 왜 멀리 떠나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응 그건 정 깊은 사람들의 만남을 위해 베푸시는
하느님의 은총 때문일거야!

오!
언제나 맑은 영혼의 향으로 남고 싶어라

그리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걷고 싶다.
비록 그 길이 어설피든 황혼의 오솔길일지라도
희망찬 내일이 동산 위에서 해맑게 미소 지을 수 있으리라.

나는 미래를 사랑하기에
오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리라.

1996년 부활절 메시지

죽음을 딛고

— 부활 대축일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에는 공동체와 각 개인이 건너가야 할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끝날 때, 그 마지막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가 오늘날만큼 빈약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 가문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은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빠서 이 신비를 못 본 채 지나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삶의 진수를 뽑아 올리는 샘물에 입을 대고 살아가는 그 맛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8일에 타계한 프랑스 전 대통령 미테랑의 말입니다.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며 남긴 이 마지막 몇 마디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모로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깊은 산 속에서 도를 닦고 내려온 사람이나 인간의 영적 삶을 전문적으로(?) 탐구한 종교인도 아니고, 어쩌면 그런 이들과는 정반대 편 세계에 몸을 담고 한평생을 살아온 이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 전 대통령’하면, 험악한 일들만 주로 연상되는 요즈음의 분위기도 한 몫 해서, 그런 느낌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국제간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으면서, 국방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 그날 그날의 삶에 꼭 빠져 있어도 시간이 모자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죽음 이쪽의 삶이 깊은 제 맛을 지



니기 위해서는 죽음 저쪽의 신비라고 할까, 혹은 그냥 죽음의 신비라고 할 쪽을 절대로 빼놓거나 잊어버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신비를 망각하고 살면, 그 때는 인간의 삶으로서의 깊이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는 참 맛과 재미, 보람, 의미도 같이 잃을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음 이쪽의 삶을 가장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점은 여기서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파고들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진수를 뽑아 올리는 그 샘물에 입을 대고” 살았다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다면, 판뚜껑을 덮을 때 만사가 영원히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풍요하고 환희에 찬 삶으로 건너가는 관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전 대통령들도 삶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을,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들도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비춰 줄 말 한 마디쯤 남길 수 있었을 것을, 그러나 우

이 전 정성약국

약사 정성규(마르띠노)

동국해성APT 상가 106호
(구 해성고)

☎ (0652)254-7322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진신C-T촬영·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라우건설

상가, 주문주택, 주유소,
목욕탕, 숙박시설, 토목

송기종(리우렌시오)

삼천동 우성상가 2층

☎ 225-0438~9

호출기 012-684-0924

대우 디지털 피아노 전북대리점

벨로체 음악센터

· 디지털 피아노, 키보드, 전자울렌

· 전문가가 운영하는 전자악기 전문점

최인철(안토니오)

유혜자(크리스티나)

관동로 전북은행 앞

☎ 86-2643~4 FAX 86-5282

숫아오른 생명



맞이하어 —

리는 다른 누구에게만 그것을 주문하고 정작 자신은 거기서 빠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뒤에 남겨 두고 혼자 가야하는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인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건 한 집안의 가장이건간에, 자신과 딸린 이들의 삶까지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면 그럴수록,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뚜렷한 관념을 가지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먹고 입고 잠자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리면,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빠져리게 체험했습니다. 폭을 넓혀서 그것이 한 나라라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 신비, 애써 외면하려드는 죽음 저쪽의 일에 관해서 분명한 생각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각 개인의 삶,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 그것은 사람들이 속으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 애써 외면하려드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

이병호 주교 / 천주교 전주교구장

포로부터 풀려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깊이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면 사람은 지금의 삶이 더없이 환희에 차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더 이상 그 삶을 어둡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 마다에서 찬란하게 비쳐오는 생명의 약동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스며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모두 형제 자매로 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모두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하느님께서 사랑이심(1요한 4,8)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긴 안목으로 현실을 보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도 매일의 삶을 그런 자세로 살아갈 만큼 눈이 열리고 감각이 살아 있다면, 세상은 당장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을 던고 일어난 생명, 그것은 우리 개인과 사회 속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헤치고 참 삶 속으로 들어서게 하는 희망입니다.

요십이 (180) 김병오



호성동 성당 상량 바자회

성전 상량 기념 바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만남의 장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맛있게! 풍성하게!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 때 : 4월18일(목)~21일(일)
- 장소 : 호성동 성당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G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성소 피정

- 때 : 4월20일~21일 오후 4시
 - 장소 : 소사 은혜의 집(경기도 부천)
 - 문의 : 244-0094 호성동 성당 (032)349-1370 소사 은혜의 집
- ※ 전주지구 월모임 4월 28일입니다.

꿈동산 완구점

자전거, 미끄럼틀, 그네
농구대, 기타 완구일절 주문

황 의 성(요 한)
박 옥 미(소피아)

주공3단지 앞 최외과 옆
☎ 227-1919(완구원구)

가정탁아 전문 아이 사랑방

- 0세~3세 약간명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 실무경력 5년

조현숙(베르베뚜아)
임업시험장 맞은편
☎ 84-0164

수정의 성모트리피스트 수녀원

기도하고 일하라'는 정신으로 은
세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다
음과 같은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콘(주문제작 및 판매)
· 마들렌(프랑스풍 케익-수공업 무
공해식품) · 개인피정
· 문의 : ☎(0551)22-3801
FAX(0551)21-8961

부활 풍속(風俗)

박 찬 길 신부 / 사목국장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경축한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신앙을 확증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부활 축제는 성탄 축제에 비해 관심이 덜한 편이다. 성탄절은 한 달 전부터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드는 데 반해 부활절은 그렇지 못하다. 판공성사를 보는 신자들의 숫자도 부활절 보다 성탄절이 훨씬 많다. 이에 사목자들은 어떻게 부활 축제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잡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 풍속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새 옷(흰 옷) : 부활 때 새 옷을 입는 관습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부활의 기쁨을 나타낸다. 세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과 사순절 동안 참회와 기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자들은 그 외적인 표시로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부활의 은총을 상징하며, 거룩한 생활의 외적인 고백이다. 우리도 부활주일에 모두 새 옷을 입고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자.

양고기 : 부활절에 구세주를 상징하는 어린양의 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부활 식탁의 한가운 데 과자나 설탕으로 어린양을 만들어 놓는다.

부활 달걀 : 부활절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풍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절 만찬을 거행할 때 삶은 달걀을 먹었다. 달걀은 낄이면 낄일수록 굳어지는 것으로서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부터 달걀은 '봄'이나 '풍요'의 상징이었다. 달걀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되고 있어, 마치 겨울 뒤에 숨어 있는 봄과 같은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신자들은 부활 주일에 달걀을 주고받았다. 지금은 그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영광스러이 나타나신 들무덤을 상징한다. 부활 달걀의 아름다운 색깔과 도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부활 토끼 : 유럽에 가면, 부활절에 토끼 모양의 초콜릿이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흰 토끼처럼 깨끗하고 순결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낸 것이다.

부활 과자 : 유럽의 여러 나라 국민들은 부활 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 그런데 이러한 빵들과 과자들은 고기와 달걀과 함께 부활성야 때에 사제의 축복을 받았다. 부활 축제 시기에 이러한 특별하고 조그마한 형식을 가정에서 갖는다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조금은 깊게 할 것이다.

부활 백합 : 백합은 모양과 형태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빛나는 흰색과 청심함과 우아함을 볼 때 확실히 그것은 부활 의식에 감명을 주는 선구자라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백합은 항상 미와 완전성과 선의 상징을 갖고 있다. 부활절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꽃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정공사 전문업체 한국조경

- 농장직영 - 조정수, 유실수, 잔디
 - 준공검사 수목 식재 (주택, 상가, 아파트, 별장)
 - 묘지 조성(조경)
- 정 정 문(사도요한)
☎(0652)221-2002, 3641

모두랑 외식산업

- 도시락 - 야외용, 장지용, 성지순례용
출장파티 - 준공, 개업식, 회갑, 결혼피로연
- 서 영 호(아고보)
진 미 연(루시아)
- 정읍시 언지동 312-1
☎(0652) 72-8758
☎(0681)537-0505~6

현대체육사 의료기

- 케스트 등산점, 헬스기구, 무용복, 에어로빅, 수영복, 게이트볼,츄리닝, 유니폼, 선물기념품, 상패, 혈압계 등
- 김 병 섭(프란치스코)
김 현 숙(까리따스)
- 창인동 천주교 상가
☎(0653)841-6706, 842-8949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 · 이혜경(글라라)
북전주전화국 ↔ 법원 중간
☎ 253-3232, 254-2631

교 구 소 식

❖ **축! 건진**

- 때 : 4월 14일(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복자 성당

❖ **교구청 임시휴무**

- 때 : 4월8일(월) 부활절 관계로
4월11일(목) 국회의원 총선

❖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때 : 4월 14일(일)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천호피정 안내**

- 때 : 4월 23일(화)
- 주제 : 영성이란? (십자가의 성요한 영성을 중심으로)

- 강사 : 방효익 신부
- 때 : 4월 27일~28일
- 주제 : 성체성사와 신앙생활
- 강사 : 범석규 신부
- 문의 : 73-6600

❖ **이시정 신부 주소**

St.Peter und Paul Kirche
werdgaschen 26
8004 Zurich
SWITZERLAND

❖ **성직자 모지 미사**

- 때 : 4월 8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성직자 모지

❖ **성체조배 봉사자교육**

- 때 : 4월1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대상 : 각 본당 지속적인 성체조배 임원

❖ **기억할 사제**

- 11일 이기수(도미니코)신부 25주기

성소모임

❖ **성바로말 수도회**

- 때 : 4월 14일 오후2시
- 장소 : 성바로 서원
- 문의 : (0652)252-3398
<성소상담은 수시로 함>

❖ **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

- 때 : 4월 14일(일) 오후2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문의 : (0653)53-8395

■ **권해드립니다** ■

- 자유와 충실
베르나르도 헤링 / 소병욱
13,000원 / 바오로딸

구속사업 전체는 치유의 사업이다. 신학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윤리신학은 본질적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 책은 사제와 신자들을 위한 윤리신학서로서 사회윤리를 다룬 것으로 인간 생활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사회적 면모와 사회적 사명을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 애창 가톨릭 성가2
카세트 3,500원, CD 8,000원
바오로딸

애창 가톨릭 성가1집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음반으로써 신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가톨릭 성가를 반주 음악 형식으로 편곡하여 연주한 것이다.

1집에 비해 웅장한 악기음이 많이 들어가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전례에 더욱 맞들이고 신앙심도 북돋아준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집안의 악취 제거법 ②

- **차 찌꺼기로 바닥 닦으면 일석이조**

현관 바닥은 생각보다 오염이 많이 있는 곳. 커피를 거른 후 남은 찌꺼기나 차잎을 습기가 남았을 때 뿌렸다가 바로 쓸면 먼지가 제거됨과 동시에 좋은 향기가 남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철 지난 신발은 흡습제와 함께 밀폐용기에 보관**

계절이 지난 신발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발을 깨끗히 닦은 다음 햇볕에 충분히 말려 건조시키고 흡습제와 함께 박스나 비닐 봉지에 넣어 보관한다.

온천 수림 식물원

관엽, 분재, 동·서양란, 초화

송 종택(빅 툴)
이 희 순(아가페)

안덕원 우아파출소 옆
☎241-6685, 245-0087
011-659-799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알풍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남부커티

원단 도매 · 가공 · 시공
인타 · 스토코

김형문(대견안드레아)
이장주(신니아)

전주 성원오피스텔 옆
☎ (0652) 85-3131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임혜연(엘리사벳)

전풍백화점 앞 에스쁘리 2층
☎ 85-5041

플무원 내추럴하우스

플무원이 만든 다이어트!
(전문상담원 무료상담, 체지방 비율측정) 녹즙기 종합대리점
(엔젤/그린파워/요리슨)
김재식(리파엘)·이은실(라파엘라)

정읍시 연지동 연지APT 정문 앞
☎ (0681)535-5432, 536-5432

대륙 전자식 온돌 판넬

방바닥을 뜯지 않고
당일 깔아서 바로 사용

박금옥(요한)

태평동 혈액원 앞

☎ 74-3571
(휴) 011-655-2231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무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예수 부활 대축일 : 주 참으로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 ◎ 부활 대축일 준비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단체별 옷놀이 대회 및 나눔의 잔치 : 오늘, 공식미사 후
- 2. 견진 신청 : 21일까지 사무실
* 타 본당에서 세례받은 신 분은 세례증명서 첨부
· 전진교리-21일(일)~26일(금) 후 8시
· 전진성사-27일(토) 후 4시
- 3. 모임 : ①울뜨레야-7일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모임-11일 전 10시30분
④새실리아회-12일 저녁미사 후
⑤장우회, 대전회-14일, 공식미사 후
- 4. 다음주일(14일)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5. 금주 전례 : 새벽-중노2구역, 저녁-중노1구역
- 6. 차주 전례 : 새벽-중노4구역, 저녁-중노3구역
- 7. 금주 청소 : 남노 2,3반
- 8. 차주 청소 : 동전1반, 남노4반

□ 지난주 봉헌금 : 1,043,800원 □ 교무금 : 2,939,0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무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오늘은 부활대축일입니다.
- 1. 오늘 공식미사 후 신자분들께 떡국을 대접해 드립니다.
- 2. 첫영성체 교리 대상자 모임 : ①교리일시-4월23일(화)~5월17일(금) 화, 수, 목, 금(후 3시30분) ②대상-초등부 3학년 이상 ③교재대금-2,000원 ④첫모임-23일(화) 후 3시30분 ⑤첫영성체일-5월18일(토) * 신청서는 교리대금과 함께 20일까지 교리교사나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3. 예비자 교리 안내 : ①주일반-후 5시30분 ②수요반-후 7시30분 ③장소-에비자 교리실(소강당) * 예비 교우님들을 많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4. 반모임 안내 : ①11반-9일(화) 박미라(새실리아)씨댁, 후 2시, T. 84-8382 ②우정반-9일(화) 이명자(마르셀라)씨댁, 전 11시, T. 82-4403 ③7반-10일(수) 이윤례(율리아)씨댁, 전 10시30분, T. 83-7528 ④27B반-10일(수) 윤순례(마리아)씨댁, 영동고덕 A동206호, 전 10시, T. 85-5259 ⑤8A반-11일(목) 김맹순(마리아)씨댁, 후 7시30분, T. 85-9681
- 5. 만남의 시간 : 거산 103반-11일(목) 김영순(첼마)씨댁, 1006호, 후 8시, T. 84-7156
- 6. 금주 모임 : ①꾸리아-오늘 후 2시, 성당 ②청년회-오늘 후 4시, 5회합실 ③울뜨레야-11일(목) 후 7시30분, 1회합실
- 7. 청소 안내 : 금주-사랑하을 어머니Pr., 차주-사랑의 쉼Pr.

□ 지난주 봉헌금 : 1,228,550원 □ 교무금 : 2,831,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무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식 기

- 1. 축 ! 예수 부활 대축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주간 전례와 부활축일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2. 축 ! 견진 : 14일(다음주일) 공식미사중-주교님 주례
* 견진성사 후 나눔의 잔치(중식)가 있습니다.
* 견진교리는 9일(화)~13일(토) 후 7시30분에 있습니다.
- 3.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 4. 금주 모임 : ①성우회, 대전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 5. 주간 모임 : ①구역분과회-9일(화) 전 10시
②자모회, 안나회-11일(목) 전 10시
③여성분과회-13일(토) 전 10시
- 6. 차주 모임 :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후 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 7. 금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박상기 부부, 봉헌-김홍원 가족
- 8. 차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구본창 부부, 봉헌-최문자 가족
- 9. 성당 청소 : 4월 13일(토) 다투의 담Pr., 순결하신 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 803,300원 □ 교무금 : 1,535,500원
□ 2차헌금 : 479,15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무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예수 부활 대축일 : 축 ! "주 참으로 부활 하셨다" 알렐루야!
(부활계란 기쁘게 서로 나눔시다)
- 1. 금주 모임 : ①제수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애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뜨레야-후 8시
- 2. 주간 모임 : ①사라회-9일 전 11시
②나자렛회-9일 전 11시
③예루살렘-10일 전 11시
④베엠타회-10일 전 11시
⑤돈보스코회-10일 후 7시30분
⑥다비드회-13일 후 3시
- 3. 차주 모임 :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④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4. 병자 봉성체 : 12일 후 2시
- 5. 초등부 은총 시장 : 13일 후 2시~5시, 장소-성당, 대상-초등부 어린이 모두
- 6. 강루시아 수녀님 피정 : 9일~18일
(신자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주일헌금 : 2,576,080원 □ 교무금 : 4,656,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무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 ◎ 축 ! 예수 부활 "주 참으로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 1. 금주 모임 : 요셉회-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 ①안나회, 애령회
②동정녀들의 모후Cu.
- 3. 불우이웃돕기 사순절 저금등 : 구역정은 모아서 사무실에
- 4. 부활절 행사 : ①예수 부활대축일 미사-오늘 10시30분
②친교의 시간-청 백대항 놀이마당
③주일학교 은총시장-후 2시
- 5. 감사 ! : ①제대꽃 봉헌-성모회, 이상을, 황도마 3만원, 김파리아 2만원, 신영자 1만원
②부활절 행사 참조-청년회 10만원
- 6. 부활절 판공성사 못 보신 분은 서둘러 옵시다.
- 7. 산행 : 11일(목) -지리산 천왕봉
- 8. 광활하고 빠짐없는 충신투표로 좋은 일꾼을 뽑읍시다.
- 9. 성당청소 : 금주-새벽Pr., 차주-평화의 모후Pr.
- 10. 금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한동욱 가정
- 11. 차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최경림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391,260원 □ 교무금 : 615,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85-6979 수 너 원 87-0229 주임신부 이상 선
F A X 82-6686 사 무 실 83-8245 사목회장 강 상 근

- ◎ 예수 부활 대축일 : 축 ! 예수부활 ! 알렐루야!
- 1. 미사 시간 변경 : 주일-5시30분, 9시(학생), 10시30분(공식), 7시30분(청년), 월요일-5시30분, 화요일-7시30분, 수요일-7시30분(아버지), 목요일-7시30분, 금요일-11시(어머니), 토요일-4시(어린이), 7시30분(특전)(성당 입구 계시관 참조 바랍니다)
- 2. 어린이 은총시장 : 14일 후 2시-5시,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있으시길...
- 3. 예비자 모임 : 목요일 낮반 및 저녁반
일교식-18일(목) 후 8시
- 4. 금주 모임 : 평화의 여왕Cu.-오늘 후 2시30분, 성지회-오늘 공식미사 후
- 5. 주간 모임 : 제대회-9일 전 10시
- 6. 차주 모임 : 천주의 모후Cu.-후 2시30분
- 7. 이발 봉사 : 14일, 전 10시-후 4시, 장소-사무실 옆
- 8. 재활용 폐품 수집 : 청년회원 일동(신문, 잡지류, 빈병, 캔 등)
- 9. 주유권 판매 : 주유권을 구입하여 성전 신축에 작은 정성을 모읍시다. 구입처-사무실
- 10. 사목회 상임위원회, 구역반 회장 회의는 16일에 있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779,020원 □ 교무금 : 4,044,000원